진정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사용을 향하여

UNAI ASPIRE 고려대 지부 김현정

전 세계의 에너지 사용량의 관점에서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1:50인 사회이다. 이는 CO2 배출량을 두고 전 세계 인구의 2%에 해당하는 사람이 98%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나머지가 2%의 에너지 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일컫는 말이다. 이처럼 세계는 에너지 불평등이 만연해 있다. 우리가 만약 전기를 비롯한 에너지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어떨까? 현재의 삶의 수준을 더 이상 유지할수 없을 것이다. 에너지는 생활에서는 없어서 안 될 중요한 요소이다.

전 세계적 에너지 사용 추이를 본다면, 2014년 기준 전 세계 인구 가운데 10억 600만 명이 여전히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30억 명이 조리에 필요한 깨끗한 연료와 기술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 채 실내 공기 오염에 노출돼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의 발전은 어려울 것이다. 즉 에너지 접근성이 발전권의 핵심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전 세계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만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서도 에너지와 관련한 목표가 제시되어 있다. SDG 7인 '모두를 위한 적정 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하며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을 위해 에너지 접근의 보편성, 에너지 가격의 적정성, 에너지 공급의 신뢰성(안정성), 에너지의 지속가능성, 에너지의 현대성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들은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에너지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공급받으며 미래세대에도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지속성을 갖는 것을 추구한다.

그렇다면 과연 현재의 에너지 공급 방식은 올바른 방식인가? 현재의 에너지 공급 체계를 살펴보면 우리는 에너지를 모두에게 공급할 만큼 충분한 기반 시설을 갖추지도, 미래 세대까지 지속 가능하게 사용하도록 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현재의 주요 에너지 공급원인 화석 에너지의 사용으로 인해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원인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러한 기후변화는 자연환경에서의 영향을 넘어 인권에도 영향을 미치곤 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사람들은 살아갈 터전을잃어 생명권과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다양한 자연 재해가 빈번이 일어나 건강권을 위협받는다. 또한 에너지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주요한 지역은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의 피해는 개발도상국이 많이 위치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을 기후 불평등이라 부르며 이는 기후 정의에 어긋난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산 방식은 무엇일까? 이는 단순히 에너지를 현 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따라서 SDG 7에 따르면 모두에게 전기와 같이 적정 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보편적 접근이 보장되어야 하며 전 세계 에너지 구성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비중을 실질적으로 늘리고, 전 세계 에너지 효율도 개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에너지의 사용으로인해 현대적인 연료와 조리시설은 오염된 연기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이고 실내 공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악화를 방지한다. 또한 궁극적으로 친환경적인 에너지 생산 방식은 에너지 안보를 넘어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사막화, 물과 식량 부족으로 인한 분쟁 등 인류가 당면한 가장시급하고 중대한 과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구촌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에너

지 생산 방식에 있어서 태양열, 태양광, 풍력 등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늘리고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에너지를 줄여야 한다. 또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에너지를 아껴써야 할 것이다. 또한 세계 시민으로서 에너지 취약 계층을 위해 국내에서 운영되는 제도인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에너지 사용을 줄이며 마일리지를 이용해 에너지 빈곤층에 기부하거나, 에너지가 부족한 국가의 어린이에게 후원자가 직접 조립한 태양광 랜턴을 보내주는 친환경 에너지 나눔 캠페인인 lighting children 캠페인 등에 참여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할 것이다.

출처

한겨레, [조효제의 인권 오디세이] 신재생에너지를 요구할 권리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00510.html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우리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에너지 설비 관리, 에너지취약계층을돕는방법

http://www.energycent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2

Towards true sustainable energy use

UNAI ASPIRE KOREA UNIVERSITY BRANCH HYEONJEONG KIM

In terms of energy use all around the globe, it can be called as '1:50 society.' This refers to the reality that 2 percent of the world's population use 98 percent of energy and the rest use only remaining 2 percent. As such, energy inequality is rampant in the world. What if we can't use energy including electricity? We will no longer be able to maintain the current standard of living. Energy is an important factor in life.

According to the global trend in energy use, as of 2014, 1.06 billion of the world's population still cannot use electricity, and 3 billion people are exposed to indoor air pollution because of no access to clean fuel and technology for cooking. These circumstances make their development difficult. In other words, energy accessibility can be seen as the core problem. Therefore, energy-related goals are also presented i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which the international society has created to solve current problems and create a better future. SDGs Goal 7, 'Securing affordable, reliable, sustainable and modern access to energy for all' must meet standards such as the universality of energy access, the adequacy of energy prices, the reliability of energy supply (stability), energy sustainability, and energy modernity. These criteria ultimately seek to ensure that everyone is reliably supplied with energy under any circumstances and has the sustainability to reliably supply it to future generations.

If then, is the current energy supply in the right way? The current energy supply system do not have enough infrastructure to provide energy to everyone and we even do not use the energy in sustainable way for the future generation. In addition, the use of fossil energy, the current main source of energy, is a major contributor to climate change. This climate change often goes beyond the natural environment and affects human rights. Due to climate change, people lose their living grounds, losing their right of life and housing. Natural disasters are also another threat to their health rights. The damage from climate change is also concentrated in Southeast Asia, South Asia, Africa and South America, where many developing countries are located, although the major areas causing problems from excessive use of energy are advanced countries. This phenomenon is called climate inequality and it goes against climate justice.

What is the sustainable way of producing energy? This simply means a situation in which energy can be used by the current generation. Therefore, SDGs Goal 7 requires everyone to ensure affordable, reliable and modern access to energy, such as electricity, substantially increasing the share of renewable energy in global energy configurations, and improving global energy efficiency. Due to this use of energy, modern fuels and cooking facilities reduce producing indoor air pollution and prevent deterioration of health. Ultimately, the eco-friendly way of producing energy can serve as a key to address the most urgent and critical challenges facing mankind, including rising sea

levels, desertification, and disputes over water and food shortages due to global warming, beyond energy security.

So what can we do for the sustainable energy of the global community? We need to increase the share of renewable energy such as solar and wind power and reduce the needlessly used energy. We can also use energy-efficient products to save energy. As a global citizen, we can reduce energy by using 'eco-mileage' that are used in Korea and donate to energy-weak class. Also, by participating in many programs such as Lighting Children Campaign, an eco-friendly energy sharing campaign that sends solar lanterns assembled by sponsors to children in energy-poor countries.